

서울~목포~제주 고속철 공론화 시동

국회 토론회서 ... 해저터널 필요성 제기

“개통편 외국인 관광객 연 400만명 증가”

서울~제주 고속철도(JTX)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JTX에 부정적인 제주지역 여론을 의식해 JTX가 제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초발전에 나선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 교통수요연구그룹장은 “JTX가 서울~호남~제주로 이어지는 관광레저·서비스 성장축, 부산~목포~제주로 이어지는 남해안 선벨트 성장축 등을 구축하고 산업구조 다각화,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제주 발전과 관련 “JTX로 인해 기상악화 시 반복되는 ‘고립’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이동의 정치성과 편리성이 실현돼 제주 방문 고객에 대한 교통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고속열차 1회 승승이 제주 국내선 5회 운항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도 연간 402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이 그룹장의 주장이다.

물류비용 감소와 그에 따른 기업 경영리스크 감소, 도민의 육지 이동 개선, 국제회의 개최 건수 증가 등으로 제주도가 한반도 국제관광허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놴다.

김영록 의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수가 올해 1200만명을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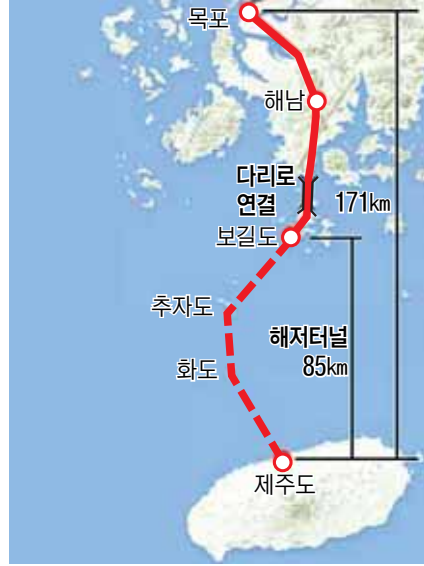
파할 정도로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철로 건설은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고 앞으로 통일 한국에선 유라시아철도와의 연결로 제주에서 유럽까지 철도교통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축사에서 “JTX는 장거리 해저터널 때문에 전문학적 사업비와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과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사업 가능성을 열어놴다.

한편 JTX 사업에는 16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1년 타당성 조사를 벌여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8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등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상당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목포~제주 해저터널 KTX 사업개요



소요시간	40분
길이	171km(해저터널 85km)
예산사업비	16조 8000억원
공사기간	8년



한승원 칼럼

정약전을 소재로 소설 ‘흑산도 하늘길’을 썼을 때 다윈주의자로 알려진 한 원로 신부님이 토굴을 찾아왔는데,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저 하늘에 한 분이 계시는데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찾아가면 여호와 하느님으로 보이고, 스님이나 제가 찾아가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는 유쾌하게 웃었다. 나는 늘 하늘에 안겨 살고 그 하늘을 보듬고 산다.

당신의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낮은 데로 임하라고 가르치신 위대한 성인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믿는 분들의 성스러운 명절이다. 하얀 꽃송이 같은 눈이 교통장애를 가져오지 않을 정도로 살짝 내려 크리스마스이브가 한층 그윽하고 아름답고 낭만적이었으면 좋겠다.

학창시절 친구에게 이끌려 교회엘 다녔던 기억이 있다. 나의 어머니는 처녀 적에 교회엘 다니면서 글자와 수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직하게 살기를 배웠고, 아버지에게 시집 외서는 천도교를 믿었고, 당신의

날을 가진 가위에 비유해 말한다면, 한 개의 날은 유학이고 다른 한 개의 날은 천주학이다.

그의 저서들을 읽어보면, 유학과 천주학이라는 두 개의 날로 된 가위로 세상을 재단하여 해석하고 디자인하고 있다. 특히 그의 정직과 평등과 낮은 데로 임하는 성정은 그 두 학문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체질화하고 실천한 결과일 터이다.

‘중용(中庸)에서 “하늘이 명한 것(天命)을 성(性)”이라고 한 다음 “술는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없으며, 미소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군자(지성인)는 혼자 있을 때를 삼간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다산은 독특한 견해를 피력했다. 주자는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란 대목을 원래 태어나기를 깨끗하게 태어났기 때문, 즉 본래 타고난 성품(本然之性)이 그러하므로 혼자 있을 때 삼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산은 주자가 선승(禪僧)들의 말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고 반기를 들고,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하늘에 안겨 살고 보듬고 산다

시할머니(나의 증조모)를 따라 절에 다녔다고 들었다.

나는 대학 시절에 김동리 선생의 장편소설 ‘사반의 십자가’를 읽으면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고 애썼고, 여러 내용들을 신화적·환상적으로 받아들였다. 가령 하느님이 인간의 최초 여성인 ‘이브’를 최초의 남성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만들었으므로, 이후로 남성들은 옆구리가 허전해지곤 하는 고독에 늘 사로잡히는 것이고, 자기를 매혹하는 여성을 만나 사랑을 나누어야 그 고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식으로.

조선조 후기의 이벽, 이승훈, 정약중, 정약전 등의 많은 지성인들은 중국을 거쳐 들어온 ‘천주실의’나 ‘질곡’ 등의 책에 빠져들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십대 초반에 천주에 대한 신앙 속에 빠져들었지만, 나라에서 금하자 신앙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다.

다산의 일생을 통틀어 보면 어린 시절부터 공부한 유학과 이십대 초반에 깊이 빠져든 천주학이 평생의 사상을 지배한다. 그의 학문과 사상과 세상을 올바르게 경영하려는 철학을 두 개의

“군자는 혼자 있을 때라도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한 것은 그가 천주학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가령 교통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적발했는데, 적발된 자가 운전면허증 밑에 5만 원짜리를 숨겨 내면 단면 교통경찰은 어찌해야 하는가. 교통경찰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5만 원짜리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상태를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을 찾아가 이권을 청탁하려는 자가 단면이 대면했을 때 돈 봉지를 제공하려 하거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늘 하느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러한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천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깨끗하고 낮은 데로 임하는 고귀한 삶을 위하여 늘 당신 옆에 그림자처럼 계시어 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소설가>

해남·고흥군 최우수 광주시·남구 최하위 지자체 살림살이 공개

행정자치부는 23일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작년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재정운영을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능력의 분야별로 평가해 시·도는 3등급, 시·군·구는 5등급으로 순서를 매겨 공개했다. 재정운영 우수 지자체는 작년도도 공개됐지만, 종합·분야별 최하등급까지 전체 성적표가 공개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역시자치단체 중에서 광주와 전남은 나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고흥과 해남이 최우수인 가등급을, 영암과 무안은 나등급을, 광주 광산구는 다등급을, 여수, 나주, 담양, 화순, 장흥, 함평, 진도, 광주 동구, 북구는 라등급을, 목포, 강진, 완도, 신안, 광주 서구, 남구는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북에 보낼 방한용품 전달받는 이희호 여사 (右)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23일 광주시 남구 구동광주시각장애인협의회에서 열린 송년행사에 참석해 시각장애인들이 북한 지원을 위해 직접 만든 털모자와 목도리 등 방한용품을 전해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선관위 기초실장 정정식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23일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1급)에 정정식 전남선관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인사 명단 22명>

이 위원장은 또 광주시 선관위 상임위원(1급 상당)에 원찬희씨를, 전남도선관위 상임위원에는 김성중씨를 각각 승진 발표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민선 6기 첫째 1조3719억 투자유치

89개 기업 일자리 6091개 창출

전남도의 민선 6기 첫째 6개월간 투자유치 규모가 89개 기업 1조37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23일 ‘2014 전라남도 투자유치의 날’ 행사를 개최, 한국다이하퍼(주) 등 21개

기업과 3337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한 해 투자유치 업무를 총결산했다.

이날 투자협약 기업은 서울에서 영암 대불산단으로 이전할 한방의약품 제조회사 한국다이하퍼(436억원),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할 ICT 기업 스마트파크(1134억원) 등 21곳으로, 이로 인해 1327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나주 혁신도시 입주 ICT 업체 8곳은 목포대 등 지역 대학들과 취업 연계 인력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대학들로부터 단계적으로 500여 명의 청년 인력을 공급받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1일 출범한 민선 6기 6개월 동안 일본 스미토모제이(1000억원), 베일러글로벌헬스그룹(2000억원) 등을 포함해 89개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액 1조3719억 원, 일자리 6091개를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 /윤현석기자chadol@

경품행사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격대상자점용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 (즉석복권기념품 포함)

선물 1

(개별시 명품 응모권 증정)

1등: 황금열쇠수금1남(1명)

2등: 가전제품 100만원 상당권(2명)

3등: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등인 1인 포함)3명

4등: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5등: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 상용은 예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선물 2

(기념품(10))

[핸드크림] [차약세트]

선물 3

(개별시 즉석복권 증정(100%당첨))

[통장지갑] [글라스백 밀폐용기세트] [세리믹코팅 냄비]

자격기준

- 출자금 10만원 이상 할당금액
- 정기예금 15000원 이상 가입금액
- 대출 1,000만원 이상 상환금액
- 생령금액, 자동사보형 가입금액
- 전자기금 송금자

- 자문이세 3년 이상 상규자
- 체크카드 신규재발의이상 이용고객
- 광동추천업체의 점성자지 표 이용 고객
* 상기 자격기준은 회원에 한함

2015년 정기총회(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소풍 1층
충장지점 : 062)223-7217, 223-7218 충장로 5가 입구

1636 걸고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1636전화회고 사용중인 상호를 말함하시면 연결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빙 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보 이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1위의 음성 인식 기술회사인 뉴앙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眞김서연)양이 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주)로피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